

ZERO BASE

SeoulAuction × 아트경매

ZERO BASE

Seoul Auction × 아트경기

주최



주관

Seoul Auction



ONLINE AUCTION
2024. 11. 12^{TUE} 2pm

PREVIEW
11. 7^{THU} – 12^{TUE}
서울옥션 강남센터

ARTIST

김영화	_____	Kim YoungHwa
성승혜	_____	Sung SeungHye
신상원	_____	Shin SangWon
신예린	_____	Shin YeRin
이수진	_____	Jade SuJin Lee
최지현	_____	Choi JiHyeon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 ‘아트경기’는 경기 예술가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미술시장 진입, 그리고 건강한 미술시장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미술시장의 주요 구성원인 창작자와 유통자를 동시에 조명하고 지원함으로써, 창작-유통-향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아트경기 작가로서 경기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65인의 시각작가를 선정했습니다. 일 년간 미술장터, 팝업갤러리, 미술품 임대 · 전시, 아트페어 등의 전시 · 판매 사업을 통해 다양한 개성을 지닌 아트경기 작가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번 ‘아트경기 × ZEROBASE’에서는 6인의 아트경기 작가 작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작가와 컬렉터를 더 가까이 더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ZEROBASE 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미술 애호가분들이 아트경기와 함께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부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정말 전부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술시장은 없을까?

열심히 활동하는 작가들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고
작품에 대한 가치 판단이 꼭 다수에 의해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작가들의 다양성이 그 무엇으로도 재단되지 않고
또
월급을 조금씩 모아서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살 수 있고
내가 산 그림이 꼭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좋게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컬렉터로서 나만의 개성이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제로 베이스는 이러한 시장을 지향합니다.

서울옥션

Kim YoungHwa

김영화
b.1978
@ younghwa78_

한경대학교 디자인학부 미술학사 졸업

2024

《화랑미술제in수원-오타쿠바자르/아트경기》단체전, 수원컨벤션센터, 수원
《MERI ART 1st exhibition-②》단체전, 두남재 갤러리, 서울
《MOAF 2024》단체전, 아트필드 갤러리, 서울
《MERI ART 1st exhibition -①》단체전, 인터스텔라 리조트 갤러리, 춘천
《LIGHT UP! 2024》단체전, 더아트나인 갤러리, 서울

2023

《아트플래쉬! 2023》단체전, 행궁길 갤러리, 수원

2022

《나와나, 너와너, 나와너》개인전, 수원시립만석미술전시관, 수원
《인제 서화 DMZ 평화.생명 예술제_현대미술전》단체전, 서화리 일대(야외), 인제
《오사카갤러리 초대展》단체전, 안녕인사동, 서울
《아트플래쉬 11회 정기전 - 우리 만나자》단체전, 교하아트센터, 파주

2021

《생각을 먹고 자라는 머리카락》개인전, 갤러리 유디, 서울
《10th ART Flash EXHIBITION-LIGHT UP! 2021》단체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

2020

《9th ART Flash EXHIBITION》단체전, 갤러리 썬, 용인



머리카락은 생각(기억)을 먹고 자라는 피부이며 머리에서 가장 밀접한 신체이다.
작가는 땅에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라는 식물들도 꽃과 잎, 열매 등을 피워 자신을 표현하듯,
머리카락도 “자신의 생각(기억) 하는 것들을 먹고 자란다.”라는 개념에 착안하여 시작하게 된 작품을
선보인다. 그는 주재료인 연필을 최대한 가늘게 칼로 깎아 8~10번 정도 머리카락(선)을 그린 후 다
시 깎아내는 작업 과정을 반복하며 작품을 제작한다.

“한 가닥, 한 가닥의 머리카락(선)이 만들어 내는 공간과 공간의 파편들이 살아온 삶 자체를 구성하
는 생각과 기억으로 하나의 형체를 만들면서 나와 나, 너와 너, 나와 너에 대한 자아(自我)의 인식을
한층 성숙하고 풍부하게 할 것이며, 그 파편들이 나를 형성한다. 생각과 기억의 파편이 자신의 표출할
수 있는 결국, “나이며 너”이다.”



나와 나, 너와 너, 나와 너

pencil and ink on paper

104×74.8cm

2018



나와 나, 너와 너, 나와 너

pencil and ink on paper

27.4×19.8cm

2023



나와 나, 너와 너, 나와 너

pencil and red clay on paper

28.5×20.3cm

2022



나와 나, 너와 너, 나와 너

pencil and ink on paper
75x51.6cm
2021

나와 나, 너와 너, 나와 너

pencil on paper
50x36.4cm
2016



Sung SeungHye

성승혜
b.1984
@ misssung_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사학과 졸업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순수미술학부 회화과 졸업

2024
《도시 정원》개인전, 미사장_남영, 서울
《아트경기 런 페스티벌》단체전, 갤러리 끼, 파주
《2024 화랑미술제 수원_아트경기 미술장터 ‘오타쿠바자르’》단체전, 수원컨벤션센터, 수원

2023
《성승혜 초대전》개인전, 백희갤러리, 전주

2022
《우리 동네 탐구생활》개인전, 경기평화광장 경기천년길 갤러리, 의정부
《2인전》단체전, 케이엠제이 갤러리, 인천
《인천아시아아트쇼》단체전, 송도컨벤시아, 인천

2020
《용기는 파도를 넘어》단체전, 단원미술관, 안산
《LOVE & RESPECT》단체전, AK 갤러리, 수원

2017
《생애 첫 소장 경험》단체전, 에코락 갤러리, 서울
《ASYAAF 2017》단체전, DDP, 서울

2016
《작가와 함께 하는 예술쇼핑》단체전, 갤러리 토스트, 서울





얼음하천

acrylic on canvas

91×116.6cm

2024

성승혜 작가는 보통의 날들과 평범한 것들의 재발견을 주제로 드로잉 및 회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시각적 이슈들을 이상적으로 화면에 옮기기 위해 고민한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감정적 상황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마음의 동요를 견디며 살아간다. 작가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보통의 상황들과 별 볼 일 없는 일상들이 때로는 특별해질 수 있으며, 타인과의 감정적 공유가 가능함을 말한다.

최근의 작업은 공간이 가진 의미에 대한 시각적 접근으로써, 이미지를 보는 개인적인 관점과 사람들이 인식하는 방식에 근본적 변화와 영향에 관한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오래전 타국에서 외롭고, 힘들었던 생활을 잊을 만큼 여행이 주는 이국의 낯선 즐거움은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의미가 있다. 도시의 이면이 가진 기묘한 이야기에 대한 관찰은 본래 가지고 있던 내용의 고정된 사실을 벗어나 초월적 가치마저 느끼게 한다. 이렇듯 인상적 공간의 묘사를 통하여 현재와 과거의 이면, 또는 그 안에서의 더욱 긴밀한 관계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구름낀 하늘

gouache on canvas
45.5x53cm
2023

뿌리식당

acrylic on canvas
27.3x40.9cm
2022





쇼윈도

acrylic on canvas
53×72.7cm
2022



카페 안에서

gouache on canvas
45.5×53cm
2023

Shin SangWon

신상원
b.1991
@ ssw_studio

경기대학교 서예문자예술학과 졸업

2024
《20240528》개인전, the untitled void, 서울
《Canvas chronicles》단체전, 한국타이어,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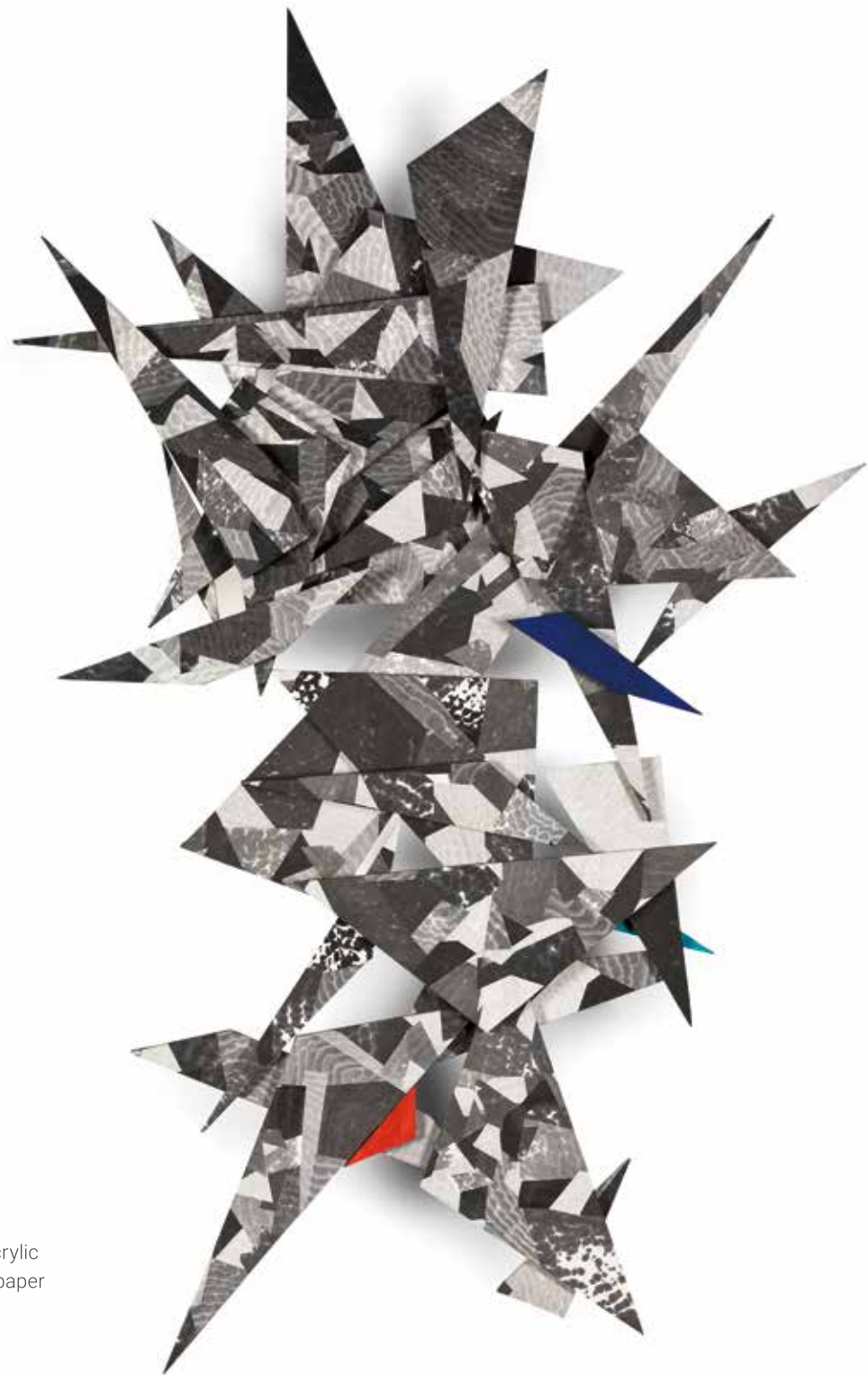
2023
《202308181900》개인전, the untitled void, 서울
《20230902》개인전, 테오화랑, 서울

2022
《20220506》개인전, the untitled void, 서울
《자연과 사람의 기억》단체전, 도화아트, 서울
《NEW Oriental Waves》단체전, M contemporary Busan, 부산
《The Basic》단체전, 삼세영미술관, 서울
《신상원, 홍순용 2인전》단체전, Art&CHOI'S, 서울
《The preview》단체전, S Factory, 서울

2021
《허의 공간》개인전, 갤러리 팔조, 청도
《2021 end of year charity show》단체전, the untitled void, 서울
《신상원, 좋은비 2인전》단체전, 맨션나인 방배, 서울

2020
《12월4:30》개인전, gallery life, 서울
《time travel》단체전, 이안 아트스페이스, 서울
《신상원, 정보람 2인전》단체전, 갤러리 라메르, 서울





2024002151642

Chinese ink and acrylic
on Red Star Xuan paper
151.2×93×5(d)cm
2024

소통의 목적이 아니라면 작품 혹은 예술이라 불릴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예술가가 생산성 없는 작업을 수 세기에 걸쳐 21세기, 사람의 영역을 위협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나가며 관객에게 호응과 관심을 받는 이유는 예술 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타자와의 소통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작품과 관객의 소통 시작은 마주 보는 것이며, 이어서는 작품의 제목이 될 것이다. 관객은 작품에서 시각적 정보를 수용한 후에 그 공간 귀퉁이에 있을 캡션을 찾아 제목을 확인한 뒤 제목과 작품을 번갈아 바라보며 또 다른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제목은 인식된 객관적 시각 정보를 주관적으로 정리하고 재결합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신상원 작가의 최근 몇 년 동안 제작된 작품들 제목은 작품이 끝난 시점의 년, 월일, 시간 이렇게 12가지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의 제목은 그저 해당 작품의 완성 날짜만을 나타내고 있다. 작품에서 보이는 것은 작품을 구성한 물질들의 조합과 작품이 관객 앞에 있기까지의 시간 동안 행해졌을 행동이다.

작가는 존재에 대한 주제로 작품을 시작했다. 그동안 만들어진 작품들은 '어떻게 하면 아무런 의미 없이 피투된 세상에 현존재로써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무한한 시간 위에서 80년 남짓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가만히 있어도 줄어드는 시간보다 소중한 것은 없고 그 짧은 시간을 인지하면서도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가는 생명체는 인간이 유일하다. 더욱 그렇기에 의미를 목적으로 하는 세상에서 의미라는 것을 배제하고 절뚝한 시간과 행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에 목적을 두는 것이다.



202404201349

acrylic spray, Chinese ink and Red Star Xuan paper on wood

61.8×34.8×18.7(d)cm

2024



202408172341

Chinese ink on Red Star Xuan paper

53×45.5cm

2024



202408211537



202408252147

202408211537, 202408252147 (2 works)

Chinese ink on Red Star Xuan paper
each 34.8x24.2cm
2024



202408271707

Chinese ink on Red Star Xuan paper
53x45.5cm
2024

Shin YeRin

신예린

b.1998

@ rida__drawing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석사 재학

성신여자대학교 조소과 졸업

2024

《움직이는 도시풍경》개인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YOUNG1》단체전, 상업화랑 H.ART1, 서울

《우연히, 호수》단체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23

《Around: 도시와 관계》개인전, 스페이스어반, 서울

《Action, less》단체전, 아트살롱, 파주

《틈:blank》단체전, 갤러리 인사아트, 서울

2022

《향유자》단체전, HOMA Pavilion 1, 서울

《관점의 다수성》단체전, ANDNEW Gallery, 서울

2021

《조각가의 탈리스만》단체전, 아트스페이스 H, 서울



신예린 작가는 3D 펜을 활용하여 일상성, 관계성, 유연성을 묘사한다. 작가는 3D 펜과 현대적 재료를 사용하여, 도시 풍경의 선적 재현을 통해 현대인의 특성과 도시 공간 이미지를 재해석하고,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모빌 작업을 한다.

PLA라는 재료를 3D 펜에 넣어 한 줄씩 녹여가며 사람을 그려 나가는 작업을 한다. 작품에는 주로 움직이는 사람이 등장한다. 움직이는 사람을 그리다 보니, 이 작품들이 실제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했고, 라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3D 펜이 적합했다. 3D 펜은 필압 조절이 가능한데 띄워 놓고 보면 마치 공간 속에 드로잉 한 것처럼 보였다.

빛을 비추면 빛과 작품의 거리에 따라, 만들어지는 그림자가 한 공간을 가득 메우기도, 아주 작아지기도 하는 현상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다. 라인뿐이지만, 복잡성과 단순성을 내재하고 있고, 얇고 가볍지만, 한 공간을 가득 메울 정도의 아우라가 있다. 그래서 3D 펜으로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냈다. 처음에는 사람만 작업하다가 나중에는 캔버스에 작업을 시작하며 건물의 이미지를 다루기 시작했다. 만들어내는 사람은 정적인 사람이 아닌 항상 움직이는, 동적인 사람이고, 동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도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시의 이미지를 작품에 끌고 왔다.

도시란 모든 경제, 문화, 사회적 이슈 등이 담겨있는 복합 매개체라고 생각하는 작가는 도시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작품을 보고 공감을 하고, 작품의 소재가 된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에 기본 사람들은 작품을 접하며 색다른 미적 경험을 하게 되길 희망한다.



Paris

PLA, wire and acrylic on canvas
dimensions variable
canvas: 60.6×90.9cm
2024



A Week

PLA and acrylic on canvas
33.4x21.2cm
2024



A Week

PLA and acrylic on canvas
33.4x21.2cm
2024



A Week

PLA and acrylic on canvas
33.4×21.2cm
2024

Walk

PLA, wire and stainless steel
sculpture: 18.4×19.5×35.9(h)cm
pedestal: diam 6×2(h)cm
2024



Jade SuJin Lee

이수진
b.1980
@ studio.jadesujinlee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화 전공 졸업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2024
《서울아트위크 포트폴리오 리딩룸》단체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23
《텔릭 Telic》개인전, 청년예술청 그레이룸, 서울
《머리와 꼬리 이야기》개인전, Soma Art Space, 베를린, 독일
《경기예술지원성과보고: 생생화화》단체전, 김홍도미술관, 안산
《당신에게 말을 거는 이유》단체전,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AIR Frankfurt: Tel Aviv & Seoul Exhibition》단체전, basis Projektraum, 프랑크푸르트, 독일
《회화 아닌》단체전, 대구미술관,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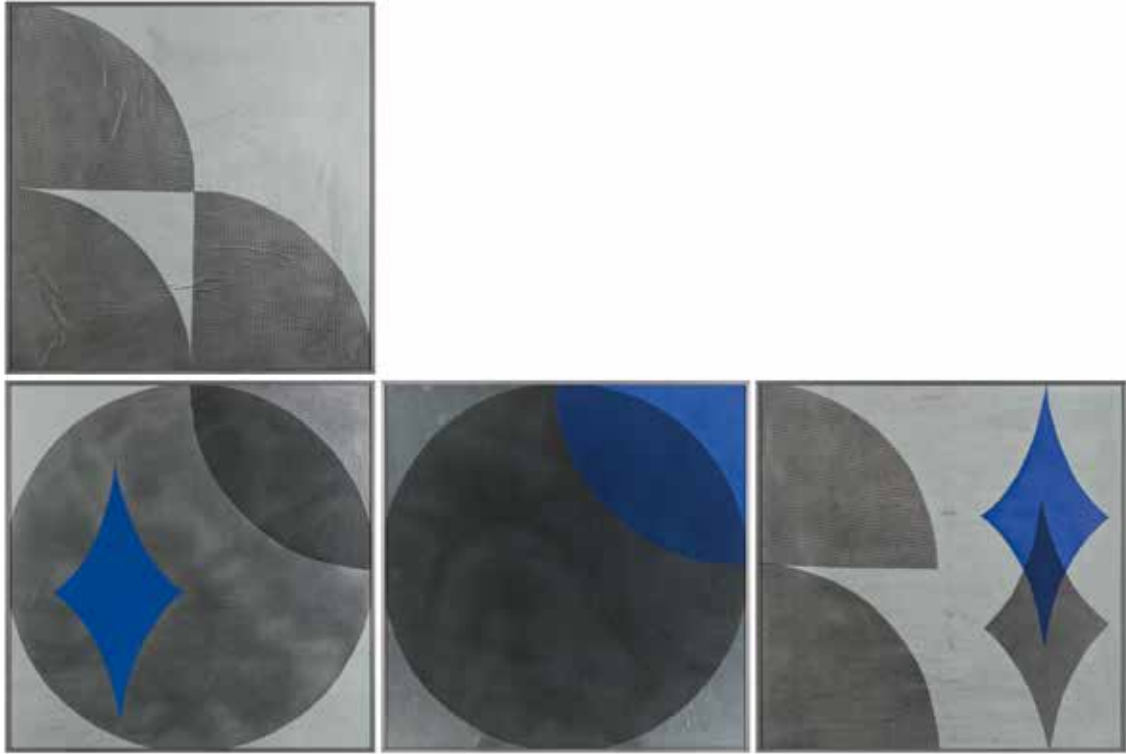
2022
《돌과 유리 하이킹》개인전,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서울
《워밍 허밍》개인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제22회 송은미술대상》단체전, 송은, 서울
《삼원소》단체전, 서울시립미술관 SeMA벙커, 서울

2021
《Our New Normal》단체전, YICA 아마구치 국립미술대학, 미네, 일본
《그라운드X》단체전, 서울시립미술관 SeMA창고, 서울
《드로잉 너머》단체전,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서울

2020
《강의 끝자락 Edge of the River》단체전, 글렌데일 국립도서관 리플렉트스페이스, 글렌데일, 미국

2018
《임시, 관계, 그리고 구조의 기술》개인전, Soma Art Space, 베를린, 독일





별의 돌림노래 (set of 4)

silver leaf and mesh with aluminium frame

image: each 59×59cm

frame: each 60.6×60.6×2.2(d)cm

2023

이수진 작가의 대표적인 영상 작업 <불과 얼음의 노래 How to make a song with opposite value?>(2021)에는 행성, 달, 별 작업으로 일컬어지는 세 가지 설치 작업을 활용한 안무가들의 퍼포먼스가 등장한다. 이 퍼포먼스는 인물의 움직임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무가들이 행성, 달, 별을 운행시키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서, 오늘날의 우주적 궤도를 다른 규칙, 안무, 운동감으로 진화와 시간,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은유를 만들어 나간다. 달과 행성을 교차하는 움직임은 새로운 규칙과 질서가 시작되는 하나의 '우주적인 사건', '별의 이동'을 은유하고자 하였다. 작가는 이 퍼포먼스를 모티브로 하여, 2021년 이후 최근까지 별의 도상, 은하수, 밤하늘, 별빛 등의 서정적 은유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시리즈 작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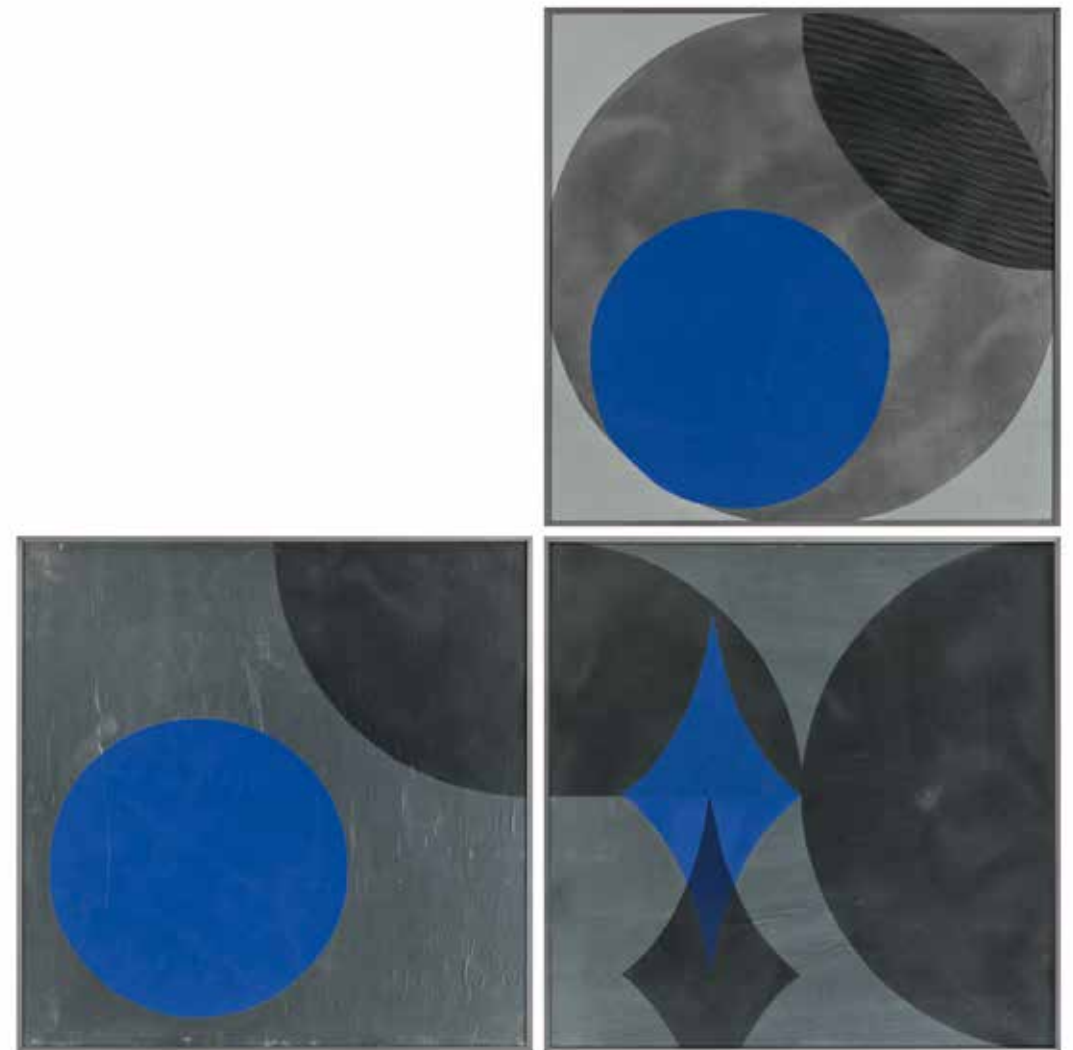
별의 돌림노래

paper, silver leaf and mesh with aluminium frame

image: 31.5×31.5cm

frame: 33.5×33.5×1.8(d)cm

2021



별의 돌림노래 (set of 3)

silver leaf and mesh with aluminium frame

image: each 59×59cm

frame: each 60.6×60.6×2.2(d)cm

2023



별의 돌림노래
color and pen on fabric
30.4×30cm
2024

별의 돌림노래

color and pen on fabric
30×30.3cm
2024



Choi JiHyeon

최지현
b.1984
@ choijihyeon102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국립 강릉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졸업

2024
《유무무유》개인전, 김홍도미술관, 안산
《Young 1》단체전, 하트원, 서울
《BAF 2024》단체전, 세종문화회관, 서울
《최지현 유지희 2인전 <FOREST>》단체전, 헬렌앤제이 갤러리, 서울

2023
《숨은그림찾기》개인전, 구리아트홀 갤러리, 구리
《The new vanguard》단체전, 스콧앤제이 갤러리, 베벌리힐즈, 미국
《ART Ground, London》단체전, 사치 갤러리, 런던, 영국
《자유로이 노닐다》단체전, 김홍도미술관, 안산
《브리즈 인사이트》단체전, 예술의전당, 서울

2022
《아는 숲》개인전, 호아드 갤러리, 서울
《이어지는 마음》개인전, 수호 갤러리, 성남
《An Unexpected Gift》단체전, 최정아 갤러리, 서울
《Group by <3>》단체전, 퍼블릭 갤러리, 서울

2021
《숨겨진 마음》개인전, 피아츠, 서울
《호모 비아토르:길위의 사람》단체전, 갤러리 화이트 원, 서울
《뉴웨이브》단체전, 마루아트센터, 서울
《여행 feat. 마음》단체전, 현대백화점, 서울

2020
《당신의 특별함에 대한 믿음》개인전, Research & Art Gallery,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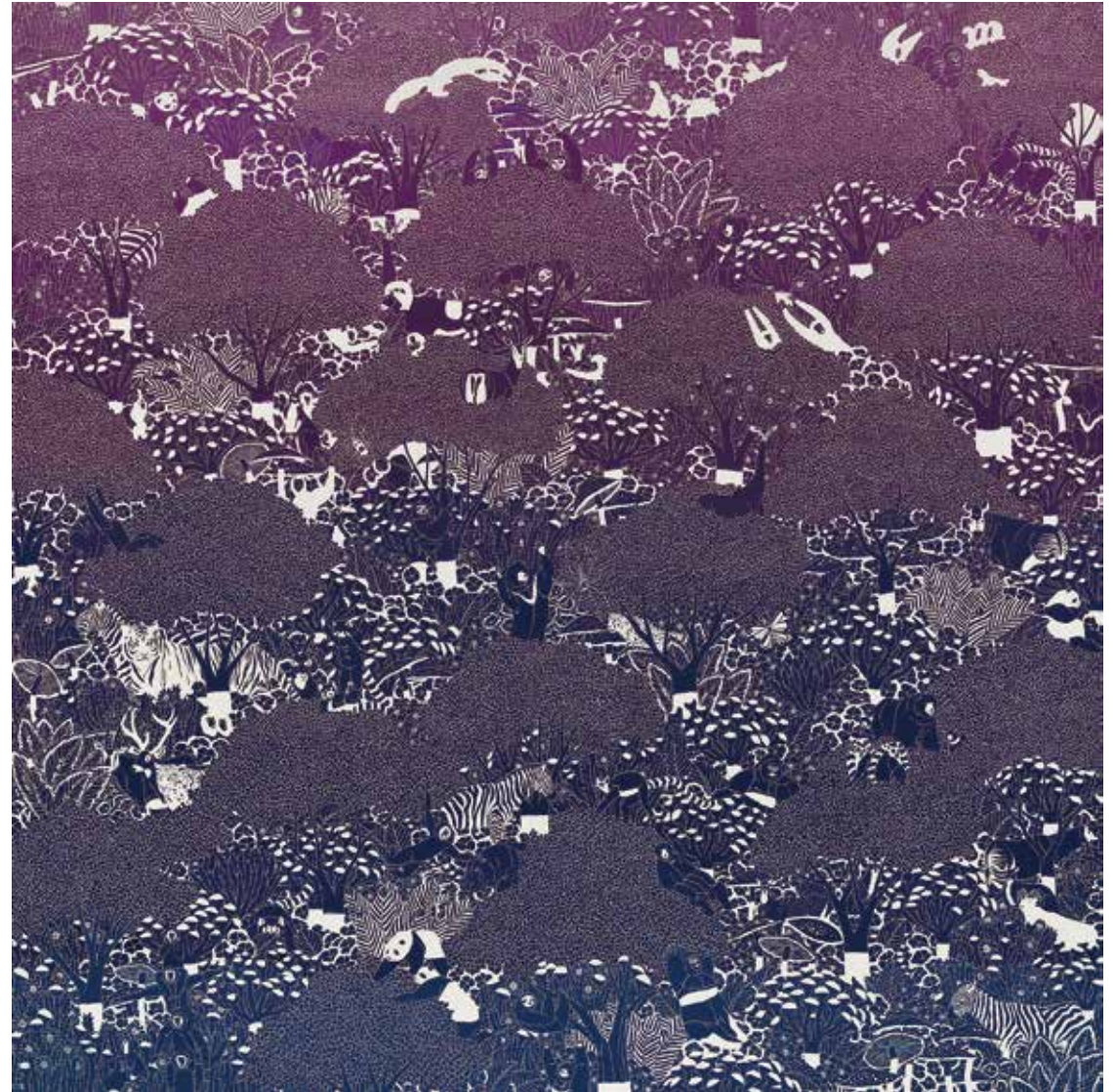


있지만 없는, 없지만 있는.

최지현 작가의 작업은 숲속에 숨겨둔 이야기로 시작한다. 사회 속에서 숨겨진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보호색이나 패턴 안에 숨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는 뒤편은 또 다른 우리다. 일반적인 숨은그림찾기에는 ‘보기’가 있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지만 작업에는 보기가 없다. 찾을 것인지 지나칠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때 찾지 못한 이야기는 있지만 없는 것, 없지만 있는 것이다. 숲은 바다숲, 곤충 숲, 동물 숲 등 여러 배경으로 표현하지만 결국은 누군가 무엇을 찾아주길 기다리는 것은 같다.

작가는 타인의 죽음으로 이러한 생각을 좀 더 깊이 하게 되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김없이 그를 언급하고, 웃고, 떠들며 꼭 옆에 있는 사람처럼 말한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로부터 선택적으로 다시 살아나거나. 다시 없어지곤 한다. 세상에 없지만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삶에 있는 ‘나’는 죽은 그와 어떤 점이 다를까? 여전히 보호색에 가려져 특별하지 않은 한 조각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누군가 스쳐 보내는 어떤 이야기처럼 그 안에 존재하지만 찾지 못하는 수많은 조각 중 하나 말이다.

화면 안에는 눈에 띄고, 기억되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 유난히 패턴이 화려하거나 몸집이 큰 형태들이 다. 하지만 내가 의미를 두고 작업하는 방향은 찾지 못한 것, 눈에 띄지 않는 것, 기억에서 잊은 이야기다. 그 자리에 있지만 없는, 없지만 있는 이야기에 집중한다.



깊은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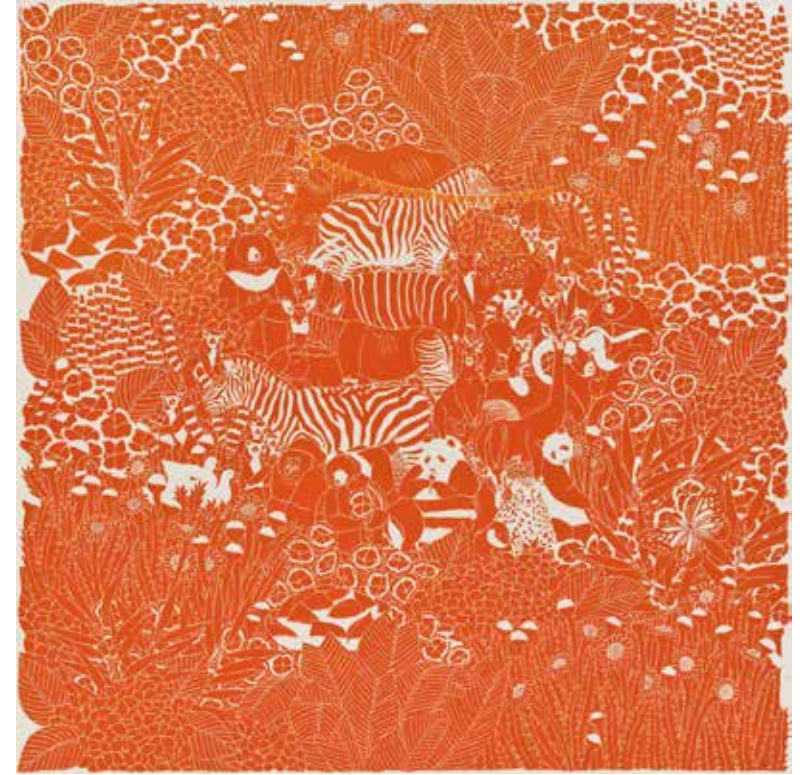
color on Korean paper

112.3×112.3cm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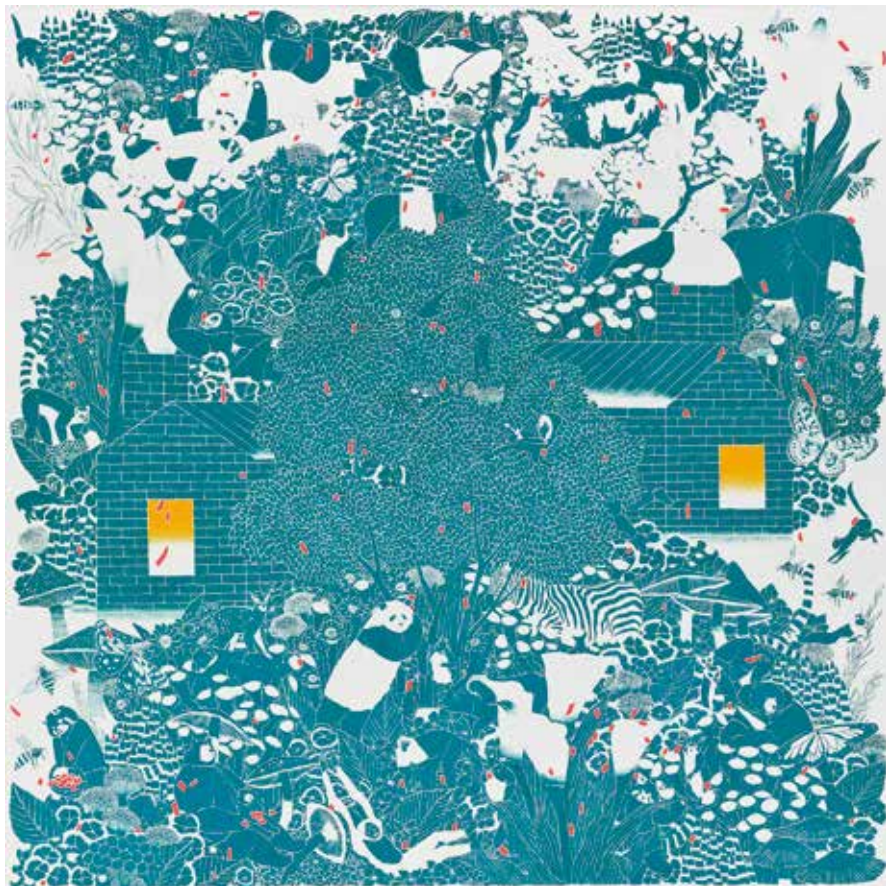
붉은 달과 빛

color on Korean paper
112.3×112.3cm
2024



어떤 소원

color on Korean paper
60.6×61cm
2022



우리 만날 약속

color on Korean paper
61×60.5cm
2024



축제

color on Korean paper
15.2×15.2cm
2024

by SEOULAUTION

ZEROBASE

평창동 본사	서울 종로구 평창31길 11	Tel. 02-395-0330	www.seoulauction.com
강남센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864	Tel. 02-545-0330	
부산점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2, 그랜드 조선 4F	Tel. 051-744-2020	
Hong Kong Limited	2065, 20/F, Infinitus Plaza, 199 Des Voeux Road Central, Sheung Wan, Hong Kong	Tel. 852-2537-1880	